

 국토해양부 <small>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small>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8. 7. 4(금)/ 총 5매(본문 2매)
담당 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장 장황호, 사무관 강성복 • ☎ (02)2110-8606, kang1016@mltm.go.kr
보 도 일 시		2008년 7월 7일(월) 9월 초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도 고속도로 놓는다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해양교통 안전효율 모두 추구

바다에도 고속도로가 놓인다. 국토해양부는 무역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증가와 대형·고속화, 신항만 건설 등으로 해양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바다의 고속도로” 일명 “바다의 Blue Highway 구축 실현”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안전 예방적 해양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고속도로 차선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양교통시설 안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전국 28개 무역항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342억을 투자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바다를 향해하는 선박을 안내하는 기본시설인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표 등)를 충분히 설치함은 물론 이용자의 시인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배치방식의 기준 정립과 첨단시설인 신소재등부표,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및 집약관리시스템을 확대하고 나아가 최근에 항행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교량시설, 해상송배전선로, 양식장시설 등에 대하여 기능이 강화된 항로표지를 개발하여 해소하는 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통합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바다의 Blue Highway”가 구축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하게 해상의 교통안전과 효율을 100% 담보를 추구할 수 있는 해상교통 안전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생각~~)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해상교통 역사상 새로운 21C 안전시스템의 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해양교통시설 하나하나가 해양문화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설치·관리되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양문화 공간조성과도 연계하여 안전과 문화의 조화라는 21C 신해양교통문화의 창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1개항만 정도가 구축되어 시범운영을 보게 될 전망이다.

무역항 진입항로 영상화 전경



[참고자료]

바다의 고속도로 "Blue-Highway구축 전략"

I 목적 및 필요성

- 무역항 입출항 선박의 증가, 대형화 · 고속화와 신항만 건설 등으로 인한 해양교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나 기존의 해양교통시설 공급체계로는 수요 충족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이를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안전 예방적 해양교통 환경조성의 패러다임, 「바다의 Blue-Highway 구축」 필요



"고속도로 차선개념"의 해양교통시설 확충과 인간공학을 접목한 이용자 중심의 HMI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21C 항로 개념인

◀ "바다의 Blue-Highway구축" 실현 ▶

※ HMI(Human Machine Interface : 항로표지와 인간공학의 접목)

II Blue-Highway 추진 계획

1. 사업 대상 : 무역항 28개소

- 서해안(8) : 인천, 평택 · 당진, 대산, 태안, 보령, 장항, 군산, 목포
- 남해안(13) : 완도, 여수, 광양, 제주, 서귀포, 삼천포, 통영, 고현, 옥포, 장승포, 마산, 진해, 부산
- 동해안(7) : 울산, 포항, 삼척, 동해, 묵호, 옥계, 속초

2. 사업기간/소요예산 : '08~ '12(5년간) / 1,342억

3. 세부 추진 계획

가 세부 추진 방향

- 무역항별 선박의 교통량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부여
- 사업 추진의 방법은 주요사업 내용별로 구분하여 추진

나 무역항별 우선순위

- 1순위 : 일평균 50척 이상, 입출항하는 항만(8개 항만)
 - 부산항(276), 인천항(115), 광양항(120), 울산항(143), 포항항(53), 마산항(53), 목포항(53), 완도항(6)
 - ※ 다도해역 및 여객선 취항 항로가 많은 항만은 1순위로 조정(완도항)
- 2순위 : 일평균 10이상~50척 미만, 입출항하는 항만(9개 항만)
 - 평택항(32), 대산항(28), 여수항(28), 군산항(23), 동해항(18), 고현항(18), 제주항(14), 옥포항(13), 통영항(11)
- 3순위 : 일평균 10척 미만 입출항하는 항만(11개 항만)
 - 진해항(8), 묵호항(7), 삼천포항(7), 삼척항(7), 옥계항(6), 장항항(4), 속초항(4), 서귀포항(3), 보령항(2), 태안항(1), 장승포항(1)

다 주요사업의 분류

- 1단계 사업 : 향로의 형상화 기반시설 확충
 - 향로표지 430기(등부표, 등표, 레이콘, 도등 등) 증설 및 대체
- 2단계 사업 : 향로의 형상화 실현
 - 집약관리시스템구축 7개소, 해상기상정보시스템구축 75개소)
- 3단계 사업 : 선박통항 위해요소 대응 향로표지 개발 및 기능 개선
 - 향로횡단 교량, 향로부근 양식장시설, 해상송배전선로 등

라 무역항별 사업추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input type="checkbox"/> 1단계 사업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2단계 사업	◀	=====	▶					◀	=====	▶									◀	=====	▶
<input type="checkbox"/> 3단계 사업		◀	=====	▶					◀	=====	▶					◀	=====	=====	=====	▶	
무역항 (28개항)	8개 항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마산항, 목포항, 완도항					9개 항 평택항, 대산항, 여수항, 군산항, 동해항, 고현항, 제주항, 옥포항, 통영항					11개 항 진해항, 목호항, 삼척항, 삼천포항, 옥계항, 장항항, 속초항, 서귀포항, 보령항, 태안항, 장승포항										